

산업부, 글로벌 R&D 예산 확대 제조업 등 산업 현장 AX 가속화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계획 공고
2322억 규모… 전년비 11% 증액
M. AX 분야 전용 R&D 트랙 신설

정부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개발(R&D)을 확대해 국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한다. 특히 제조업 AX 분야에 특화된 국제 공동 연구 트랙을 신설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322억원으로, 전년(2099억원)보다 23억원(11%)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와 해외 첨단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글로벌산업기술 연계 ▲국제협력기반구축 등 4개 프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그램으로 운영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1274억원)은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에 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의 중장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5년간 과제당 100억원 이하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올해는 신규 협력센터 1곳 지정과 19개 연구과제 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2030년 '제조 AX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M.AX(Manufacturing AX) 분야 전용 국제 R&D 트랙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제조 공정과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914억원)은 국가 간 협력 기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양국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양자펀딩형, 유럽 혁신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 등을 통한 다자펀딩형, 글로벌 기업의 구매 수요와 연계된 전략 기술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글로벌산업기술연계 사업(75억원)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관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해 해외 선도기술의 국내 도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59억원)을 통해 주요국과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재외 한인 공학자를 활용한 기업 기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청·호남·동남·대경·수도권 등 권역별 사업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박진식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이희상 코트라 수석부사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코트라 정기 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무보·코트라, 수출기업 '원팀' 지원체계 가동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 등 공조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팀'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코트라와 '제1차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열린 산업통상부장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 협의회를 통해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코트라의 전 세계 해외무역관

네트워크와 무보의 무역보험·금융 지원 역량을 연계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 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제공, 양 기관 중소·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계, 수출 전 과정에 걸친 금융·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한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조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무역 상거래 데이터 공유 ▲무역사기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사기 의심 수입자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무역 사기 피해 예방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진식 무보 부사장은 "수출 지원의 선봉에 있는 두 기관의 공조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중앙회, 유류비 부담 던다… 300억 투입

면세유 250억·주유소 50억 할인 지원
강호동 회장 "정부 물가안정 기조 동행"

농협중앙회가 일반가구 및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재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면세유 할인에 250억 원, 농협주유소 할인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면세유 할인 지원액 250억 원은 앞으로 한 달간 농업인들이 소비하는 물량에 적용된다.

할인 물량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가 대상이다. 지원 물량은 농업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배정되며 사용량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한다.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달 13일부터 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7일 강원도 동춘천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찾아 트랙터에 농기계용 면세유를 주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음 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 NH-OIL에서 NH농협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200원 캐시백 할인(NH pay 사전응모시 최대 할인금액 1만 원)을 제공한다.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는 이번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다.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휘발유 83원, 등유 118원, 경유 140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지원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농가 및 소비자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유류 가격지원이 농업인 영농비 부담을 줄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26일부터 2월2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대폭 할인 공급한 바 있다.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 공급하는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만공사,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BPA)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부산항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 공사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6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체결한 협약에 따라 ▲부산항 사이버보안 협의체 운영 협력 ▲부산항 터미널운영사 등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지원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운영 지원 분야 등을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 항만의 랜섬웨어 공격사례 등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부산항의 보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부산항은 대한민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7%를 처리하는 세계적인 허브항만이다. 부산항이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될 경우, 국내 수출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양 기관은 인공지능(AI)와 자동화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항만으로 변모함에 따라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대한민국 사이버보안의 파수꾼인 KISA와의 협력은 부산항을 한층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항만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 업무상 재해 사건 '원심 존중' 원칙 도입

재해노동자 소송 부담 완화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원심 존중' 원칙을 도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소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재 인정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지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해 향후 업무처리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상반기 'K-푸드 아카데미' 입학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수산물 산업 선도·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K-푸드 아카데미'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8일 aT에 따르면 2004년 시작된 K-푸드 아카데미는 농식품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심화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총 326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번 입학식은 지난 5일 경기 수원 소재 aT 농수산물유통교육원에서 열렸다.

2026년 상반기 과정은 'K-푸드 CEO

MBA', '농식품 유통 전문가', '농식품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와 신규과정인 '농식품 AI 전문가' 등 총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홍문표 aT 사장은 "85년부터 현재까지 약 22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aT 농수산물유통교육원 입교를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농수산물 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